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조 원 한 의 원
진 · 료 · 시 · 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1:00~2:00)
오후 2:00~7:00
(토, 공휴일5시까지, 주일 휴진)
원장 송창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31-2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지저스타임즈

www.cpj.kr 인터넷신문방송/크리스찬포토저널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12호

■ 이사장: 전영춘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The Jesus Times 110-8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6 무궁화 B/D 12층 전관 ☎02-741-0031

예장(웨신)총회 제93회 정기총회 가져

신임 총회장 장영기 목사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화합과 교단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머슴이 될터"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제93회 정기총회를 지난 9월22일 오전 11시 오산광성교회(장창수 목사시무)에서 성총회를 가졌다.

부총회장 장영기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이홍규 목사 기도와 회의록서기 김승년 목사 성경봉독, 총회장 장창수 목사가 "시대에 걸 맞는 목회자"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기도에 경천노회장 심재호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앙노회장 정일량 목사가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경중노회장 한현석 목사가 인준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각각 말았으며 총무 장승현 목사가 전국에서 미주지역에서 참석한 총대원들에게 광고와 인사를 증경총회장 정창갑 목사 축도가 있었다.

이어 2부 이동우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고, 3부 회무처리에 순서에 따라 총회장 선거에 들어가 미묘한 신경전으로 돌입, 총회장 선거가 지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문제의 발단은 각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총회장 후보를 두고 과열양상으로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비방하는 문건들이 유포되었으며, 결국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의 이력을 문제 삼아 총대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흥경, 장영기 두 후보가 나와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총대들이 뽑은 무기명 투표 결과로 신임 총회장에 장영기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부총회장 선거에서 많은 표차로 이홍규 목사에 앞서 정기남 목사가 선출되었다.

제 93회 총회장과 임원은

총회장 장영기 목사(서울중앙교회)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중앙노회/연남교회/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서 기 신언창 목사(남부노회 / 성암교회)
부서기 최은수 목사(중부노회 / 동신교회)
회의록서기 임원택 목사(경천노회 / 노원예담교회)
부회의록서기 백승대 목사(경중노회 / 은현교회)
회 계 김태곤 목사(경성노회 / 구로초원교회)
부회계 정규남 목사(강동노회 / 주복음교회)
총 무 김병수 목사(수도노회 / 임마누엘교회)
감 사 임칠환 이이중 정창갑 목사

신임 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당선소감에서 "부족한 사람을 뽑아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웨신 교단의 경선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교단을 활성화하고 새 힘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편 다 뜨거운 선거전은 사람을 만나게 했고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리로 이끌었었고 과거와 현재와 교단 미래를 생각하며 비전과 정책도 세울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최후 두 사람의 미리 준비된 정견발표의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었습니다. 본교단의 인사공천의 부실과 선관위 부재와 예측 못할 규칙적용과 헌법의 자기 주의적 해석과 아직도 잔재해 있는 극단적 보수와 진보 성경 해석적 시각이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절대적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에 우리는 누가 뽑히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뜻으로 받아드리기로 함께 동의하고 제93회기 선거에 임했고 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우리 모두 다 웨신인 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세계선교, 교단 발전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앞으로, 앞으로 나갑시다. 지금 이 시점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전적 리더쉽(holistic leadership) 이 필요한 때 입니다. 신약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유대사회는 엣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인, 제롯당, 나사렛당, 헬라파, 히브리파, 이방인등의 다양한 인종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문화 다종교 다가족 다인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총회원들에게 임하여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성스러운 사역,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오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리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총력을 다 하는 저와 우리 총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총회장에 장영기 목사는 강원도 정선 태생으로 총회신학연구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구세군사관학교 제54기 졸업임관 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A)미국 버밍헴 신학교(M.A.M)졸업 후 본교단 웨스트민스터 대학원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 총동문회 부회장과 남서울노회장 총회 회의록서기 2년 부총회장 교단 신문사 사장과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냈으며 1993년도는 평택시기독교연합회장으로 현재는 서울 구로구교구협부회장, 구로경찰서 현 경목회부회장이며 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Jesus 논 단

93회기 전총회 종료

장승현 목사
- (現)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목사
- 본지 논설위원

매년 한 차례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교단 총회가 이제 막을 내렸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면서 93회기 총회가 끝났다. 일부 대형 교단의 갈등과 내분으로 한국교회는 또다시 얼룩진 상처와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 도대체 교단이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닌가?

신학적 바탕과 신앙노선이 같은 뜻 맡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대정부 대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기독교적 문화와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신학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양성과 개 교회 부흥을 위한 교단의 지원 등,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교단이 어느 때 부터인지 권력의 상징이 되어 일부 교단의 경우 교단장의 자리가 금권선거, 타락선거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 93회기 총회에서 한국교회 비전을 갖게 하는 좋은 모습도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바로 제주에서 있었던 합동 측을 비롯한 4개 교단의 연합하는 모습이다. 연합기관이 연합하지 못하는 괴리를 벗어나 과감하게 자기를 벗고 우리로 연합할 때, 한국교회는 비로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제 93회기를 시작하는 각 총회는 부분적, 일시적으로 총회기간 중 겪었던 과열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단의 교권은 권력이 아니다. 섬김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2장 5절로 11절 까지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 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교단 정치는 섬김의 정치다. 섬김의 정치를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려면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춰야 한다. 교단장, 임원들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그 교단은 반드시 추락하고 말 것이다.

93회기 총회의 어른들(?)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명성)을 갖게 하실 것이다. 또한 교단에 속한 모든 회원은 자신의 뜻에 맡지 않아도 교단의 위상과 질서를 존중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음을 알아야 한다. 93회기 총회는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상생과 동반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맘에 드는 상대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상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93회기 총회가 끝났다. 혼란과 무질서도 끝났다. 과열도 끝났다. 오해와 비방도 끝났다. 분노와 허탈도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뿐이다. 상처가 클수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 또한 크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 두려움의 밧줄을 끌러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고요한 평화의 나라를 향해 함께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자.

'헉스터'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혼란의 시대'다. 유명 연예인들이 앞다퉈 자살하는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즉 각 교단과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제는 총회를 끝내고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위해 화합과 단결의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하자.

총회장 장영기 목사 및 임원 취임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는 지난 10월 9일 정오 서울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총회장 장영기 목사와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등 임원 취임식을 가졌다.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사회로 김성대 목사(목우형제회 회장)가 기도를, 서울중앙교회 중창단의 찬양과 비하체노 앙상불의 연주에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목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웨신총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취임식에서 증경총회장 정창갑 목사는 취임기도에 이어 총회장 장영기 목사에게 교단기 전달과 총회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어 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서기 신언창 목사, 부서기 최은수 목사, 부회의록서기 백승대 목사, 회계 김태곤 목사, 부회계 정규남 목사, 총무 김병수 목사 등에게 각각 취임패가 전달되고, 한편 구로구 교구협의 회장 정영근 목사는 장 총회장에게 총회장 취임 축하기념패를 전달하고, 총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증정이 총회장 장영기 목사 부부와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부부를 비롯 신임원 부부를 세우고 특별히 내조하는 사모들에게 주어지는 화기애애한 축하장이 됐다. 이어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취임사를 정영근 목사(구로구 교구협의회장), 김용진 목사(증경총회장)가 각각 축사를, 정재규 목사(기지협 상임총무)가 격려사를 맡았으며,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직전 총회장 장창수 목사, 이동우 목사, 이홍규 목사, 김승년 목사, 이경찬 목사, 직전총무 장승현 목사 등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무 김병수 목사의 광고에 이어 총회장 장영기 목사의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신신묵 목사(기독교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축도로 취임행사를 마쳤다.

The Jesus Times
www.cpj.kr

축 제93회 예장웨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제93회 정기총회를 지난 9월22일 오전 11시 오산광성교회(장창수 목사시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총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총회장 장영기 목사외 임원 일동

정기총회 예배모습

총회장 장영기 목사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서기 신언창 목사

부서기 최은수 목사

회의록서기 임원택 목사

부회의록서기 백승대 목사

회계 김태곤 목사

부회계 정규남 목사

총무 김병수 목사

제 93회 총회장과 임원

총 회 장	장영기 목사(서울중앙교회)
부 총 회 장	정기남 목사(중앙노회/연남교회/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서 기	신언창 목사(남부노회 / 성암교회)
부 서 기	최은수 목사(중부노회 / 동신교회)
회의록서기	임원택 목사(경천노회 / 노원예담교회)
부회의록서기	백승대 목사(경중노회 / 은현교회)
회 계	김태곤 목사(경성노회 / 구로초원교회)
부 회 계	정규남 목사(강동노회 / 주복음교회)
총 무	김병수 목사(수도노회 / 임마누엘교회)
감 사	임칠환 이이중 정창갑 목사

웨신총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 weshinch@korea.com

예장(고려) 제58회 총회 총회장 이무영 목사 재임

진군하는 광야교회(민수기 10:11~28)

예장고려 제 58회 총회가 경기도 파주 고려신학교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지난 23일~25일까지 개회 되어 현 총회장 이무영 목사를 신임총회장에 재임케 하고 신임원 선거와 총회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전국에서 참석한 217명의 총대들이 참석하여 총회가 개회되었으며 첫 날 개회예배는 서기 이현상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김원구 목사가 성경봉독을 맡았다. 이어 총회장 이무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가 규칙통과 및 행정부, 재판국, 역사편찬위원회 등 각부조직과 각 노회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총회감사예배에는 고려신학교장 석원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제58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무영 목사(은혜교회) △부총회장 홍록두 목사(서머나교회) △부서기 강춘식 목사(성남시민교회) △서기 이현상 목사(경향교회) △ 회의록서기 김원구 목사(산성교회) △ 회의록부서기 안흥수 목사(하나교회) △ 회계이영훈 장로(경향교회) △부회계 김금용 장로(산성교회) △총무:강구원 목사(갈보리교회)

예장대신총회 탁용학 목사 총무 취임 가져

예장대신총회 총무 취임 감사예배와 축하연을 지난달 29일 새중앙교회 교육관에서 동남노회, 대신연합총동문회 주최로 가졌다.

이날 한기총 엄신형 대표회장, 한장총연 김선규 대표회장을 비롯 한국교회와 교단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정인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김효제 목사의 기도, 고창곤 목사의 설교, 이무웅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고창곤 목사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단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촉촉한 이슬과 단비처럼 교단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2부 축하의 시간에는 엄신형목사 김선규목사 최복수목사 이재옥목사 한성기목사 최순영목사 정영식목사 신세철목사 박달영 장로 등이 등단해 각각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엄신형목사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한국교회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선규목사는 "장로교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체성 회복에 앞장 서 주길" 당부했다.

탁용학 목사는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섬기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대신대학원대학교를 총회 신학교로 환원, 총회회관 건립 현실화, 지교회 자립 행정정책, 유지재단 활성화, 지방노회 부흥성장 네트워크 구축, 군선교정책 활성화, 연합사업 활동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예장합동보수 보수적인 정통을 계승하는데 힘쓰겠다

신임총회장 이문복 목사, 부총회장 조규일 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보수는 제93회 정기총회를 지난 9월 18일 인천시 새인천교회당(안길선 목사 시무)에서 개회되어 신임총회장에 이문복 목사를 선출했다.

전국에서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총회는, 부총회장 이문복 목사를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며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어 총회 증경단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고 임원을 조각 발표했다. 이날 총회장 이문복 목사는 총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안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회로, 보수적인 정통을 계승하는데 힘써나갈 것을 피력했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문복 목사(태월교회) △부총회장 조규일 목사(영은교회) △서기 강창순 목사(제일교회) △부서기 김상진 목사(영문교회) △회의록서기 박희선 목사(새벽교회) △부회의록서기 양상남 목사(서울창대교회) △회계 송현수 장로(새인천교회) △부회계 김용인 장로(새인천교회) △총무 남궁찬 목사(우리영광교회)

예장(중앙) 93회기 정기총회

중앙신학대학원서 개최

총회장 백기환목사 총무 심우영목사예장중앙총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직영 신학교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신 · 망 · 애 역사와 성취의 열매가 되는 성총회"라는 주제로 300여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93회 총회를 개최했다.1부 개회예배에는 서기 이강덕목사의 사회로, 성 총회를 위하여 이근생목사, 지 교회와 인준신학 부흥을 위하여 장연승 목사, 한기총과 기독교TV를 위하여 고금용 목사 각각 기도하고, 총회장 백기환 목사가? 요셉의 신망애 승리?창세기 45장 4절로 5절)라는 제하의 설교를 증거했다.백목사는 "요셉은 꿈을 확신하였고, 시험을 이기었으며, 믿음으로 실천하였다"고 말하고"교단의 목회자 모두가 신 · 망 · 애의 성취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축사에서 "예장중앙총회 헌법 생활강령에 믿음, 소망, 사랑을 견지 한다는 임마누엘 정신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 이런 신앙적 바탕과 신학적 바탕에 세워진 중앙총회와 소속목회자들이 한국교계와 한기총에서 중심이 되어 모범적인 총회로 크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고 피력했다.이어 2부 본 회의에서는 총회 인준신학 운영문제와 총회소속 목회자의 임직문제 등이 논의 되었다. 한편 93회기 총회장인 백기환 목사가 연임되었으며,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백기환 목사 △ 부총회장 고금용 목사, 김원배 목사, 유금순 목사, 최영순 목사 △ 서기 이강덕 목사 △ 부서기 권정숙 목사, △ 회계 이복순 목사 △ 부회계 김애자 목사 △ 회의록서기 윤광선 목사 △ 부회의록서기 유정재 목사 △ 총무 심우영 목사 △ 부총무 김동진 목사

한장총, 2009년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개최한다

한장총연, 회원교단 신임총회장 및 총무, 사무총장 환영회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이하 한장총)가 한 자리에 모인 장로교 각 교단의 신임 교단장이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 뜻을 같이 했으며,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한장총에 속한 회원교단이 총회를 통해 새로 취임한 신임총회장과 총무를 초청, 환영예배를 지난 7일 앰버서더호텔에서 드렸다.

이용호목사(고신)은 교단장 대표로 인사말을 통해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현실적으로 큰 사명을 느끼고 있다"며 "이단 사이비 대처사역은 한국의 장로교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총회장은 "한기총에서도 이대위에서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있다"며 "5명의 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알려 신천지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이다"며 "현재 이슬람 인구가 30만인데 해외근로자 가운데 대다수가 이슬람이다. 앞으로 300개의 이슬람 모스크가 전국에 세워질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총회장은 "CIA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이 전체인구의 1%면 평화주의를 가장하고 2%가 되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장총의 결속이 다시 한 번 요청된다"고 부탁했다.

한편 요한칼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는 장로교회정체성회복운동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윤목사가 나와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번 제주에서 모인 연합된 모습이 내년에는 칼빈탄생 500주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장로교가 분열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한 할아버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일과성 집회가 조용한 학문적 성찰을 통해 칼빈이 요구했던 장로교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며 "한국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 '칼빈과 한국교회' 라는 주제로 하여 기념대회가 진행된다"며 "기념음악회와 칼빈흉상을 장신대 교정에 세우고 현대 불어판 기독교 강요 기증식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요한칼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는 내년 6월 21~22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칼빈 도로명을 추진하고 기념우표와 문진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장순장 제56회 정기총회 유영섭 목사 총회장 선출

총회장에 유영섭 목사, 부총회장 지대일 목사 김익수 장로 선출

예장 순장 제56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백암수련관에서 개최돼 유영섭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하고 지대일 목사 김익수 장로 등이 부총회장에 선출되는 등 임원을 개선하고 교단발전을 위해 전교회가 합심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제56회기가 됐다. 5개 노회, 1개 기관, 언권회원 등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무 처리를 갖고 각 기관 보고를 들은 후 회칙 수정안을 검토해 통과시켰다.

△총회장 유영섭 목사(안천교회) △부총회장 지대일 목사(새빛중앙교회) 김익수 장로

(신천교회) △서기 김동민 목사(창대교회) △회록서기 엄광일 목사(한사랑교회) △회계 박영환 장로(영남교회) △부회계 전배현 장로(대천교회)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매일 오후 3시 홍해의 기적성회

찬양 + 말씀 + 기도
응답 + 치유 + 회복

김평호 목사 부흥성회 일정

10/1일(수) ~ 10/4일	열두광주리 기도원 정기성회
10/5일 ~	보아스 사랑의 집
10/6일 ~ 10/11일	필리핀 선교부흥회 : 월드미션. 까르샤, 톤도교회
10/19일 ~	성민교회 (김현복 목사)
10/20 ~ 10/23일	임마누엘교회 : 최현자 목사
10/27 ~ 10/30일	벧엘기도원
11/ 2일	보아스 사랑의 집 : 조요셉 목사
11/ 3일 ~ 11/5일	열두광주리 기도원 : 김평호 목사
11/ 17일 ~ 11/20일	예수소망교회 : 조영희 목사
12/ 18일 ~ 12/10일	열두광주리 기도원 : 김평호 목사
12/ 15일 ~ 12/18일	헤브론기도원 : 김명순 목사

집회일정과 장소 및 시간안내

10/1일 (수) ~ 10/4일(목)	새벽 6시
11/3일 (월) ~ 11/6일(목)	오전 11시
12/8일 (월) ~ 12/8일(목)	저녁 7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번지
010-8411-0191, 031-535-6975
선한목자부흥사회 대표회장 : 김평호 목사 (열두광주리 기도원 원장)

200명에서 9만여 명으로 급성장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 성역 30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드림

(원로장로 추대, 장로 은퇴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본당에서 지난 10월 5일(주일) 오후 3시 나겸일 목사 성역 30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원로장로 추대, 장로 은퇴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가 드려지고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은퇴를, 이어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를 드렸다. 원로장로 추대, 장로 은퇴, 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거행되고, 장로로서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권재혁 장로가 원로장로로 추대되고, 김정연 장로가 은퇴를 했다. 박익렬, 이수철 안수집사가 장로로, 박동경 외 107명이 안수집사로, 김영애 외 269명이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 이날 은퇴자에게는 그간 노고에 대한 주님의 영광스런 칭찬과 새로 임직 받는 일군들은 기존의 직분자들과 함께 더욱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발돋음 하는 데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성역 30주년을 맞은 나겸일 담임목사는 1978년 10월 주안장로교회에 부임 이후, 계속해서 품어오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젼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총동원전도로,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집회로 한국교회를 섬겨왔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3000명의 선교사 파송과 국내 신학대학원 건립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선교를 위해 2006년 중국과 네팔 집회(1만여 명), 2007년 인도네시아 메단 집회(10만여 명)와 카자흐스탄 가라간다 집회(5만여 명) 2008년 브라질 꾸야마 집회(7만 4천여 명)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행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직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노력의 결과로, 부임 당시 2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던 교회가 현재 9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친 총동원전도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주안장로교회를 통한 이 복음의 전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님의 계획이 기대된다.

1948년 창립한 주안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그 뜻깊은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개안수술비 지원(100명), 태안반도 기름유출현장 돕기 행사, 지역주민을 섬기기 위한 무료합동결혼식 개최 및 제주도 신혼여행 지원(21쌍), 이웃사랑의 몸소 실천을 위한 전교인 헌혈 참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남동공단 지교회 개척(베트남교회), 선교사명 고취를 위한 주안선교대회,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지역 구호를 위한 지원(구호물품과 의류 2만점 지원), 세계선교의 일환으로 브라질 꾸야바 성령집회 (7만 4천여 명 치유집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안장로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한국교회와 나누고 또한 섬기기 위해 총동원 컨퍼런스로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 후 참여교회의 상황에 맞는 총동원전도를 컨설팅하여 주안장로교회의 전 교구가 나서서 행사와 전도지원을 하고 있다.(40개 교회)

예배위원

인도 박종인 목사, 기도 노태철 목사, 약력소개 김영집 장로. 성역30주년 회고(영상) 김원종 장로, 30년 목회 이야기 연정 지동근 장로, 축사 박종순 목사, 답사 나겸일 목사, 축도 이종성 목사 등이다.

전도총회 신임 총회장 정인금 목사

전도총회 제12회 정기 총회

전도총회 제12회 정기총회가 9월8일-9일까지 대구 하나교회(담임 박지온 목사)에서 열려 총회장 정인금 목사를 선출하고 회무에 들어가 안건을 처리 한 후 마쳤다.

총회장 최정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정인금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총회장은 "그가 하시는 일"(요 8:29)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최 목사는 이 땅에 많은 교단과 중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총회, 중직자, 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우리에겐 끝없는 도전과 방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벽하시고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하셨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굳건해지는 시간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로 우리 교단의 목표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오셨다.(마 9:35) 우리 교단은 다른 것들을 다 그만두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단이다. 그 일을 위하여 12년을 달려왔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러한 사역을 본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자고 강조 했다.

이어 진행된 성찬예식은 강태흥 목사가 집례를 했으며, 장규섭 목사가 축도를 했다. 2부 회무처리는 김동권 목사가 기도를 하고 총회장 최정웅 목사가 말씀을 전한 후(빌 2:2) 서기 최수근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회원 702명 중 400명이 참석하여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안건처리에 들어가고 임원선거는 총회장 정인금 목사, 부총회장 강태흥 목사를 박수로 추대하고, 총무 김광한 목사가 인사를 한 후 임원들을 임명했다.

또 총회장에서 물러나는 최정웅 목사는 부족한 저희가 총회를 맡아 인도하는 가운데 정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협력으로 임무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임명 되었기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음을 믿고 소인은 물러간다며, 인수인계를 했다.

신임총회장 정인금 목사는 "지금까지 선배 총회장들이 잘하셨는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열악한 부분들을 살피며, 함께 갈수 있는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고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 총회를 잘 인도 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를 했다. 증경총회장 최정웅 목사 총무 김효현 목사에게 공패를 증정했고, 하나교회 이세균 장로가 제12회 정기총회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담임 박지온 목사가 투석중이라 참석 못하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인사를 했다. 또한 총회는 각 상비부의 조직 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마쳤다.

신임원

총회장 정인금 목사(달성중앙교회) 부총회장 강태흥 목사(일산영광교회) 서기 김광욱 목사(예일교회) 부서기 김한곤 목사(온누리교회) 회록서기 박동순 목사(동산교회) 부회록서기 홍완선 목사(연산복음교회) 회계 이희덕 장로(하양동서교회) 부회계 김세화 장로(임마누엘선교교회) 총무 강석준 목사(참다운교회)

예장합동개혁총회 제93회 정기총회 가져

성숙되고 알찬 총회로 부흥성장하자

예장합동개혁총회가 제93회 정기총회를 9월23일 다니엘수양관(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42)에서 총회장 정서영 목사를 만장일치 환영으로 연임하게 하고, 각종회무를 처리하고 총회가 성료되었다.

이날 총회에 들어가기 앞서 1부 개회예배에 이도엽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이주섭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배영수 목사가 고후 12:7-10절 말씀을 봉독, 채금자 목사가 특송,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가시가 있습니까?"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어 성찬예식은 총무 권남수 목사가 집례를 맡았으며, 이종영 목사 기도와 임명화 목사가 고린도전서 11:23-26말씀 봉독, 총무 권남수 목사가 "성찬식이 주는 의미"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당철호, 임상섭, 정선임, 최연옥 목사가 분병위원을, 신범섭, 최영호, 조주선, 홍미자 목사가 분장위원"을 집례를 맡은 권남수 목사가 축도 했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고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제93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했고, 각종 보고와 회무처리를 통과한 후 성료 됐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제93회 정기총회를 주님의 은혜 중에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교단과 총회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성원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하고, 많은 사업과 행사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회 부흥 발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다. 앞으로 성숙되고 알찬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였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다.

박용규 교수, '피가름 설교' 비판 승소

평강제일교회가 낸 민 · 형사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담임목사 유종훈)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역사신학과)를 상대로 낸 민 · 형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대법원이 두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8다6632 손해배상(기), 2007도1220 명예훼손)

지난 2005년 5월 11일 경기도 용인 소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박용규 교수가 설교 중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박윤식 씨의 '피가름 설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평강제일교회가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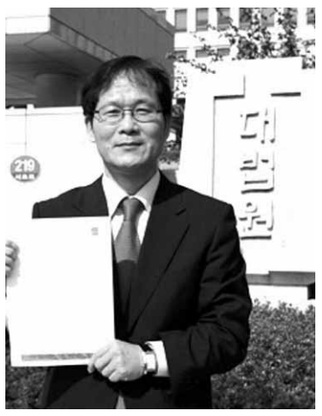
▲ 박용규 교수, 평강제일교회 '피가름 설교' 비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승소

뉴스파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용규 교수가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고도로 보장되는 교수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박윤식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의 설교 내용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없는 평강제일교회 소속의 일부 목사나 신도들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점 △신학대학원생들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교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 중에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박용규 교수의 '피가름 설교' 비판에 대해 "신학연구의 자유로써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박윤식 씨)가 그러한 비판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대학원생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상대로 신앙형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전통 신학에서 벗어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조병훈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판과 개종권고를 포함하는 선교의 자유를 내포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그 우월적 지위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일반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한국교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단성비판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인정했고, 신학대학원생들의 신앙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결과 제공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용규 교수는 "이번 소송에 임하면서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이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강단이나 설교의 자리에서 이단을 비판하지 못하고 이단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선명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가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을 비롯한 교수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판사 김용헌 외 2명)는 총신대학교 교수 등 19명이 기독신문 광고를 통해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씨에 2천만 원, 교회에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병훈 변호사는 "교수들이 제출한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기독신문> 광고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상태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항고할 경우 <기독신문>이 종교성을 강하게 띠며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단지 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교단지 광고는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히고 "총회가 재정적 지원은 어렵더라도 교수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신대 교수들은 교단 내에서 2005년 서북노회의 평강제일교회 허입 문제가 불거지자 2006년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2005년 6월8일자)을 통해 비판 광고를 실은 바 있다.

삶속에 새 힘과 지혜를 심는 메세지 ■ 목양칼럼 ■

옛 일을 잊을 수 없기에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 시인, 목회학박사

저는 지난주에 CBS창립 47주년 기념 광주복음화대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집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충청지역이나 영남지역 집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광주는 그렇게 모이지를 않는것입니다. 광주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연합집회를 크게 해도 예상보다는 많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 내려갔는데 이번 집회는 역대 광주 지역 집회 사상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모인 집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밀려오는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자리가 부족해서 진행요원들이 계속해서 보조의자를 놓고 또 놓아야 했습니다. 주최측에서도 "광주지역 집회 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은 없었다."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메시지도 너무도 좋았다."고 광주가 들썩거릴 정도로 소문이 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교계지도자 등 많은 주요 인사들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외쳤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광주 복음화를 위해 한 마음이 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보람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신대에서 채플 인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 시골 고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현종 목사님이 임직식을 한다고 설교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은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18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하였는데 그때는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굶고 있을 때였습니다. 채플실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분이 저에게 쌀을 가져다주신 것입니다. 하마터면 쌀을 가져다주다가 공수부대에게 붙잡혀 총을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광신대 채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시골의 작은 교회의 과거 어려운 시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는 마음, 은혜를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쪽으로 간 것입니다.

요즘 시대 영웅의 활극을 원하고 튀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때에 화려한 무대를 뒤로하고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그 곳에 내려갔더니 저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지 "소강석목사님이 오셨다."고 입추의 여지없이 예배당 뒤에까지 성도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존귀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곳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거절하고 광신대 채플을 인도하러 갔다면 과거 어려운 시절, 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챙이 시절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금시간도 없는데 헌금까지 하고 오니까 더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성도들도 제가 그런 진솔한 말 한 마디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흥에서 임직예배를 마치고 다시 평택시연합집회를 인도하러 올라오는데 보람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저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50대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60, 70세가 되어도 어렵고 힘든 때의 일을 기억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눈물로 보내던 시절,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분들을 잊지 않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새에덴의 오늘날 부흥이 있기까지 개척교회때부터 충성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온 몸을 던져서 희생할 것입니다. 어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없이 축복과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옛 일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한 성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는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눈을 감고 천국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옛 일을 잊을 수 없기에..

예장(국제) 제93회 총회 신임총회장 채인식 목사 당선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묵동교회(채인석 시무)에서 9월23일 24일 총회를 갖고, 개회예배에는 채인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도에는 총회서기 곽제운 목사가 총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성경봉독에는 회계 김진수 목사, 말씀선포에는 직전총회장 정진성목사가 "총회도 큰 교회이므로 한마음모아 총회에 충성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또한 퇴임 후 교회로 복귀하여 전도하고 구제하며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목사로 남겠다는 말과 함께 새총회장을 위한 기도와 협력을 당부하고 섬김을 다하는 총회가 되어달라는 말로 퇴임사를 대신하였다.

2부 성찬예식에는 증경총회장 송병섭 목사의 집례와 서울중앙 노회장 구성회목사의 기도에 이어(고전12:23-32)성경봉독 후 경기노회원들의 배병 및 배잔이 있었고, 증경총회장 송병섭 목사의 축도로 성찬예식을 마쳤다.

3부 사무처리와임원선거에서

신임총회장으로는 채인석 목사 부총회장 김제식 목사 서기 김순호 목사 부서기 이정식 목사 회의록서기 주정현 목사 부회의록서기 엄광휘 목사 회계 김진환 장로 부회계 임재섭 장로 감사 임원석 목사 박경순 목사가 선임되었다.

다음날 전날회의 장소인 묵동교회에서 9시부터 예배와 회의를 가졌고, 신임임원들의 인사와 총회장 채인석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취임사에서 총회안정과 총회소속교회의 전도, 정확한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총회 내 전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과 신학교주일을 만들어 신학교지원은 물론 후학양성에 힘쓰겠다는 결의를 가졌다. 모든 회의절차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마친 후 묵동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만찬 시간을 가졌고, 만찬장에서는 오랜만에 모인 반가움에 화제 속에 교제의 꽃을 피웠다.

Jesus 논 설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종

갈보리교회 임칠환 목사
본지 고문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큼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종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음도 부인 할 수 없다.

한국의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독교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나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일군들인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가치관마저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천 속에서 한국교회의 신관 교육, 문제의 헛점을 바로 잡는 일이다.

21세기의 성민이 되어야 할 한국 교인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매우 적게 알고 있는 성도들의 변신론적 신앙, 유물론적 신앙, 이원론적 신앙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는 일과 잘못된 신관을 바로 잡아주는 목회자들의 사역이야 말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원형이신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지니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기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이상적인 목회자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목회자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즉 오늘의 바람직한 목회자 상이 절실히 필요한 저물어 가는 2008년의 한 해가 마감되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목회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목회의 구조가 개인적인 신앙만을 위주로 하는데서 벗어나 공동체에 대한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의 성공기준의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의 성공 기준을 양적이고, 숫자적이고, 공간적인 데에 두는 것 같다. 이렇게 목회의 성공여부를 물량의 개념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목회자와 그가 가진 신학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한다. 개혁파 신학의 거목인 헐만 바빙크(H.Bavnk)는 "신학과 신앙" "교회와 신앙" 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앙 없는 신학"을 가진 목회자나 "신학 없는 신앙"만을 가진 목회자는 모두 적합한 목회자라 할 수 없다.

즉 목회자가 마음에 담아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 목회자는 바로 설교자라고 할 만큼 설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설교가 바르게 선포될 때는 교회가 든든히 섰었지만, 설교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병들었고, 흩어지고, 동시에 사회가 병들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설교자는 항상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행해질 때에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는 바로 교육가이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성경의 상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반드시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이 요구된다. 또한 목회자는 비전(Vision)이 있어야 한다. 지도력에 내적 개발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자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비전이다.

지도력의 내적 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과 창의력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초점을 끊임없이 응시하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만족스러운 계획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도력의 내적 개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헌신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는 집착력, 또는 헌신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지도력의 외적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의 지도력이 외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과 권한위임이다.

결론해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에 주목을 받고있다.

세계만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양적으로 급성장 했던 한국 교회가 질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부터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제 세상이 날로 물질화,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있는 현실 속에서 영력과 지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겠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사모하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는 참 목회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오늘날의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바라는 마음이다.

자동노출모드와 노출보정 그리고 노출 잠금(AE-LOCK)기능

카메라의 중요기능으로 노출모드 선택이 있다

*M(Manual) : 수동모드
*A 또는 Av : 자동모드 - 조리개 우선 모드
*S 또는 Tv : 자동모드 - 셔터스피드 우선 모드 또는 타임 우선 모드
*P(Program) : 자동모드 - 프로그램 모드
*AUTO : 완전자동 프로그램모드 녹색의 사각형으로 표시되기도 함

이중 M 모드 이외에 나머지 모드는 모두 자동노출모드이다 자동노출모드는 사진가가 노출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사진촬영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과 함께 단점들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사진가가 원하는 밝기의 노출값을 마음대로 설정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노출의 조정을 원하는 많은 전문 사진가들은 M 모드를 즐겨 사용한다 (지난글 에서 설명 한 바 있다)

하지만 M모드를 쉽게 쓴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진가들은 자동노출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이에 카메라 사용자들이 자동노출모드(조리개 우선식이나 셔터스피드 우선식)을 쓰면서도 어느 정도 노출값을 사진가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여 쓸 수있는 방법의 필용성을 느끼고 이를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요구에 부응하여 카메라 회사들이 카메라에 넣어 준 기능이 노출보정기능과 자동노출잠금(AE-LOCK)기능이다 노출 보정 기능과 자동노출 잠금(AE-LOCK)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출보정 기능 : 이 기능은 카메라에 설정된 노출 보정 수치에 따라 강제적으로 노출을 가감시켜서 자동노출을 주게 하는 기능이다.

(자료출처:캐논카메라)

자동노출모드 (A 또는 AV, S 또는 Tv, P)에 적용되며 노출을 1/3 stop 간격으로 2 stop 또는 3 stop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자동노출로 촬영 할 때 노출측정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보다 밝은영역에 가 있으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적정노출보다 어둡게 촬영된다 반대로 노출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 보다 어두운 영역에 가 있으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적정노출보다 밝게 촬영 된다 그래서 자동노출 시 정상적인 적정노출로 촬영이 되게 하려면 노출측정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와 비슷한 영역에 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노출로 촬영을 할 때 프레임을 잡고 나면 노출측정 포인트를 피사체 중 18그레이카드의 밝기와 비슷한 영역에 정확하게 가져다 둘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노출보정 기능을 사용하는데 노출보정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 보다밝은 영역에 가 있으면 밝기의 정도에 따라 보정치를 + 로 적당량 조정하여 밝기를 밝게 조정하고 반대로 노출보정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 보다 어두운 영역에 가 있으면 밝기의 정도에 따라 보정치를 - 로 적당량 조정하여 밝기를 어둡게 조정하면 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최동수 교수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학으로 석사과정 이수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주)금호상조
1566-4428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장례절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할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 준비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반형 20,000×120회
고급형 30,000×100회
최고급형 50,000×100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직원모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팀 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 조 설계사	0명	무경험자 가능 30~50대 (보험경력자 고수익)	기본급(출근비)+영업수수료 각종 행사 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심사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 혜택 등 지원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
(주)금호상조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가입고객 전산입력 금융결제원 고객탕종거래 신청
(주)금호상조증서 및 약관발급(우편발송 7~15일 소요)
월불입금×10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월불입금×12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임종시 (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국 1566-4428
상황접수 회원조회 고인성명 및 병원확인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장례용품을 제공, 고인 시신수습 및 빈소마련, 유족과 협의 종료,, 기풍에 따라서 알맞는 행사 진행
염습 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발인제 시간에 맞추어 장의차 배차, 장지로 출발 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알선 • 묘지이상 • 식물 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역인부 • 여자일손 • 꽃상여 • 화환 • 도시락 등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하나님의 사랑 (고전 13:1-3)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2008년 가을 특별새벽집회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금번 주제는 '사랑'입니다.

1.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입니다.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무엇이 있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정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랑은 하늘과 땅을 다 가진 것보다 부유하였습니다. 사랑은 제일 귀한 보배, 보화입니다.

2. 사랑은 제일 큰 계명입니다.

마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의 10계명이 있고 율법에 613가지 지켜야 할 법이 있으나, 그것은 사랑 하나로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누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롬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3.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빛은 태양에만 있듯이 사랑은 그분의 것이요, 그분만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거룩한 사랑, 참사랑, 영원한 사랑,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입니다.

정욕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위장된 사랑, 더러운 사랑, 값싼 사랑, 충동적인 사랑, 무모한 사랑, 굶주린 사랑으로 인격, 가정, 사회가 치료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도시 속의 죽음(Death in the city)」에서 현대인은 네 가지 굶주림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굶주림(Mind Hungry)
대화의 굶주림(Talking Hungry)
접촉의 굶주림(Touching Hungry)
사랑의 굶주림(Love Hungry)

금번 특별새벽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칠 년을 하루같이' 입니다.

창 29: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 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입니다.

야곱은 외로웠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거짓말쟁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수전노요, 고리대금 업자와 같았습니다. 양을 먹이며 들에서 자고 먹고, 더위와 추위, 맹수와의 싸움, 이웃 부족과의 싸움에서 양을 지키는 어려움, 외삼촌이 7년을 20년으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 했으나 야곱은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7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그 기쁨,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살기 싫어 자살하고, 가정을 뛰쳐나가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을 품고 삽시다. 사랑의 눈을 뜹시다. 내 몸, 내 마음을 사랑으로 꾸밉시다. 사랑의 표정, 사랑의 웃음을 웃읍시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묘약, 사랑으로 모두 치료합시다. 사랑의 창을 엽시다.

- 서로간의 사랑 같은 천국은 없다.-그린빌

(George Grenville, 1712~1770, 영국 재무상)

- 재물도, 지위도 사랑에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글래드스턴(Gladstone William Ewart,1809~1898, 영국총리)
-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힐티(Carl Hilty, 1833~1909, 스위스 철학자, 법률가)
-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다.-셰필드(John Sheffield, 1648~1721, 영국 정치가, 시인)
- 영혼 없는 신체가 사람이 아니듯이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다.-에이브리
- 사랑은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이다.-블로이(Leon Bloy, 1846~1917, 프랑스 소설가, 시인)
- 사랑은 칼 없이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영국 속담
- 사랑은 우주의 열쇠로서 모든 문을 연다.-어거스틴(Augustinus, 354~430)
- 사랑이 있는 곳에 죄가 없다.-폰테네그로
-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나폴레온(Naploleon Bonaparte, 1769~1821)

노인의 고독과 고뇌

김동락 목사 소망교회 담임
- 예장(성합) 총무
- 본지 상임이사

우리인간들은 오래 살수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특히 노인은 오래 장수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문제는 고독과 고뇌이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을 유발하며 수명을 단축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노년의 고뇌와 고독은 노인들의 모든 활동을 점차 축소시키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노인을 자신도 자기를 잘 다듬어 임하고 주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대개의 젊은 세대가 노년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해져가고 무시해가는 세대인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가만히 뒷방에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겠다는 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떡덩이도 국물도 못 얻어먹게 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될 때에 노년의 고독과 고뇌는 물러간다. "그래도 엄부에 효자난다."는 말이 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 격언은 요즈음 세상에서는 빛바랜 고어 같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오늘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성 있는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같이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주체성이 없어서 자녀교육을 망친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희생적인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나가야 자녀가 감화 감동 되어 부모를 마음속으로부터 따르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부터 과거를 돌아보면 나라가 어려울 땐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가사불고하다가 막상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개의 부모들은 편의주의에 빠져서 자녀들의 문제를 돈으로만 쉽게 해결하려 하여 자녀들을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의 사조에 빠지게 한다.

지나친 과잉보호로 자녀들을 투지력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모두는 잘못된 자녀양육이다. 부모는 물론 사랑과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들도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뚜렷한 주관을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려서 말로 표현하고 확실한 주장을 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의 권세가 크고

사 40:26"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아멘

하루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눅 20:2) 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고(마 7:29). 능력이 있었다. 그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눅 4:32). 그러므로 대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 권세의 출처를 문의하였던 것이다. 실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과 같이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위대하였음을 봅니다.

1.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마 9: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시고…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7) (막 2:10, 눅 5:24).

2. 예수님은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주셨다.

<막3:15>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눅9: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3.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눅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4.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일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5.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마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연계를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마 8:26~27절).

6.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요5: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5:22>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7.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요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10:18>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아멘.

편집인제공

지저스타임즈

jstimes.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목사
고 문 : 임철한 목사(갈보리교회), 최중립 목사(도곡교회), 김용진 목사(동산교회)
이 사 장 : 전영춘 목사
상임이사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현병우 목사(임마누엘교회), 권세능 목사(성도교회), 박복수 목사(조치원장로교회), 정재규 목사(대석교회), 오종설 목사(홍성제일교회), 임평소 장로(주)에뚜알, 장영기 목사(서울중앙교회), 박남수 목사(사온교회), 김동락 목사(소망교회),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장한국 목사, 이홍규 목사, 김평호 목사(열두광주리 기도원)
후원이사 : 권태국 집사(권태국 치과), 서명범 목사(공덕교회), 임원택 목사(노원교회), 전현구 목사(세계로교회), 정민호(금호상조회), 배근옥(건축설계사), 김민수(회사원), 손우진 집사(회사원), 곽완근 목사(두란노교회), 김상익 목사(산돌교회)
대전충청지사 지사장 : 나영수 목사 **기 자** : 전항희 사모
대전지사 이사장 : 박양우 목사(대전경찰청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충청지사 이사장 : 이기선 목사(양문교회),
논설위원 : 장승현 목사(당진 평안교회) 부국장 최장희 목사(서산갈산장로교회)
해외지사 : **우간다 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호주 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 정형선 목사, **일본 지사장** : 전동욱 목사 **태국 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12층 전관(주)에뚜알 (內) 지저스타임즈
인터넷신문방송 WWW.CPJ.KR (E-mail : webmaster@cpj.kr)
전화 : 011-468-6574 /tel. 070-8230-0036, 02)741-0031 fax.02)763-0221

KTF-SHOW (주)모티브비즈 MOTIVEBIZ

무점포대리점사업자모집 010-2872-0496

- 소비자에게 검증된 대중적 브랜드
- 소비자 및 회원에게 전혀 부담과 피해가 없는 절대 필요상품
-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고 사업자로 전환된다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첨단상품
- 성공을 위한 모든 타이밍의 완벽한 조화
- 재품(KTF)+마케팅(검증)+합법적(시장변화)+기득권(선점)
- IMT 2000 3G 극초기 시장
- KTF와 전략적 제휴로 고객가치 창출
- KTF와 윈-윈(Win-Win)에 의한 공동목표달성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1위기업으로 발돋움

궁금한점은 www.motivebiz.co.kr에서 확인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표어 : 지키자 / 목표 : 교회건축

풍성한교회 매주일 예배안내

예배안내

기 관	시 간	기 관	시 간
새 벽 예 배	매일새벽 5시 30분	기 도 회	금요일 9시
주 일 낮	오전 11시	교회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학 생 회	주일 오후 12시 30분
수 요 일 밤	저녁 7시 30분	청 년 회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절)

▣담임 : 장사명 목사 ▣반주 : 장선이 선생

교회 주소 : 339-810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 3리 664-17
교회 전화 : (041) 862-1438 팩스 (041)862-1437
H · P : 018-426-1438

주일예배안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심장로교회

금년표어 :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주 일 낮 : 오전 11시
주 일 오 후 : 오후 2시
수 요 기 도 : 오후 7시 30분
새 벽 기 도 : 새벽 5시 30분
목 요 찬 양 : 오후 8시 30분
유 · 초등부 : (토)오후 4시 30분
대학 · 청년부 : (토)오후 6시

▣원로목사 : 전영춘
▣담임목사 : 전봉화
▣반 주 :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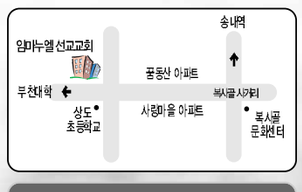
기 도
1. 교회부흥
2. 성령충만
3. 말씀충만
4. 사랑충만
5. 은혜충만

143-15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6번지
☎.02)463-0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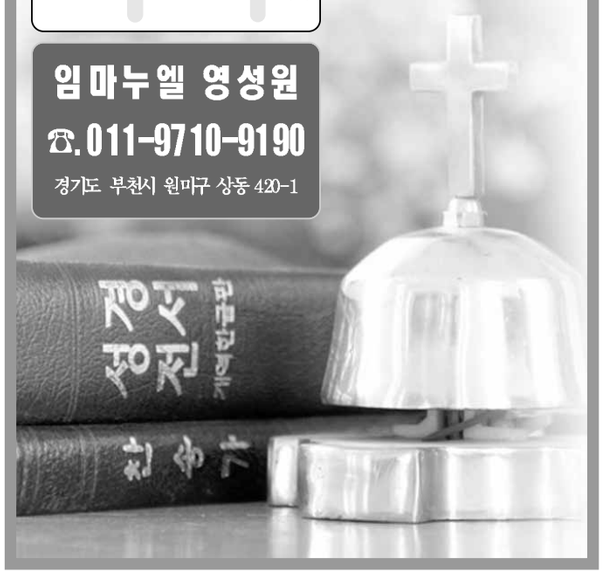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병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1 1시/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오전1 1시/오후7시



임마누엘 영성원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저녁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오후 3:30
금요철야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가정예배

권 세 능 목사
평택주천성교회담임,
본지 상임이사

오늘의 예배 / 고전13:1-7
인간관계 찬송:278장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자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아무리 싫어도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같이 생각을 하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에 성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성공을 해야합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85%가 실력이고, 15%가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15%가 실력이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예배 / 마18:21~22
용서의 힘 찬송:338장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18:22)고 하였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490번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490번보다 더한 무한의 용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수학 이상의 내용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이 무한의 용서에는 ① 즉각적인 용서 ② 많은 용서 ③ 무조건적 용서 ④ 완전한 용서 ⑤ 영원한 용서 ⑥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는 용서 ⑦ 축복을 비는 용서, 곧 잘 되기를 바라는 용서 ⑧ 중심으로 하는 용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 말3:7-12
온전한 십일조 헌금 찬송:28장

성경 중에 적어도 5000번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지요(마6:33). 물질생활에 있어서 먼저 구하여야 할 그 나라와 그 의는 십일조 헌금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노략질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십일조 헌금이 없어 졌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동시에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다리로서의 그 의미가 실로 큽니다. 성도님들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말라기서가 강조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는 예배요, 육신생활에 있어서는 십일조 헌금입니다.

오늘의 예배 / 행16:19-32
찬양의 능력 찬송:40장

바울과 실라가 아픔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능력의 찬양을 하였는데 어떻게 찬양하였는가를 살펴봅시다.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매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큰소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드려서 찬양하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었지만 찬양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 잠18:20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찬송:178장

우리의 말은 우리 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정이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불행해 질 수도 있으며, 마귀가 들끓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가급적 칭찬의 말을 하도록 하며, 부정적인 말이 아닌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며, 믿음의 말, 진실한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 삼상17:37-49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찬송:229장

인간의 최고의 진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또 하나의 위선입니다. 다윗은 나의 나됨의 존재가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 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에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비고 빈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의로워 졌습니다. 평안히 찾아 왔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 살전5:17
기도란 무엇인가 찬송:480장

세상의 죄로 오염된 풍조 속에서 성도의 영혼이 염려, 근심, 슬픔, 낙심에 질식되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공기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힘을 성령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성도의 영혼에 질식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땅위에는 성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신령한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해서 순간마다 탄산가스와 같은 죄를 토설해 내고, 산소와 같은 의와 화평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신령한 은혜의 공기를 날마다 마셔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 신6:1-9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404장

부모와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여 주면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교육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육은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조화시키는 온전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마12:31~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아멘

성령님은 한 인격체가 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성도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는 성도나 혹은 불신자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1.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의 하나임을 알자,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으로 표현됩니다.

막3:20~22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었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는 "책으로나 방송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값없이 대할 때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경건하고 복된 일을 가볍게 말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을 때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만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그 효과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가장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과오가 되는 것이다.

2. 교만으로 인한 모독죄가 있다.

히10:29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한 속죄물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놓은 구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받지 않았을 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하고 그의 죽음을 일반 사람의 죽음과 같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그 보혈의 피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3. 우리가 불순종할 때 성령님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63:9~10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임재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 …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반항을 하고 더 나아가 모독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성령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할 것을 거절하며 용납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욕망으로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괴롭히는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한 뜻을 접어야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몽땅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4. 불신자의 반항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곧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행 7:51)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성령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위해서 우리들의 양심에 자극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항할 때가 많다. 이는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 6: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였다면 마귀에 대한 것은 깨끗이 씻어지고 불신앙도 또 저항도 없게 될 것입니다.

5.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행 5:9절)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그들의 형제를 속이고 시험하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철저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비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 앞에 체하는 것은 잘못이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찼는데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왕하 5:25~27절에서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고 그 벌로 인하여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인간의 편견에 의한 소멸이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소멸의 뜻은 '성령의 불'(사 4:4절)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마 12:20),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엡 6:16),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며, 혼돈시키지 말며, 질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희생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을 끈다면 단지 잿더니만 남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암흑 세상에서 발버둥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생한 후에 죄를 범하였을 때 성령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 언행의 실수에 의한 모독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부모님들은 어린 자식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차차 성장하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걱정을 끼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는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이름을 손상시키면 성령님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유익하지 못한 가벼운 언행으로 거스림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세상 삶에 자심감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영광!!!!!!!!

편집부제공

감사는 행복의 원료입니다.

김필곤 목사

남편 염가 양도란 기사를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신문광고를 낸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불만에 차있던 아내가 이런 엉뚱한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광고를 내니까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는 주부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의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잃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등 수많은 명작을 남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에프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짧은 한 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고아로 성장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혁명당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아 시베리아로 유형 되어 4년 간 살았으며, 결혼은 하였으나 아내는 질병으로 죽고, 재혼을 하였으나 태어난 아이가 또 죽고 종래에는 자기 자신 마저도 간질병에 걸려 평생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무서운 질병이 신앙을 강하게 만들었고, 정신을 무장시켜 주었기에 그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대하소설을 집필한 사람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5년 간 암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미망인이었던 라이언 여사는 그가 죽은 후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드린 다섯 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아이들을 하루 동안 볼 수 있었던 것, 소설을 거의 탈고할 수 있었던 것,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오늘도 미소짓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2)"라고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며 불평은 불행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은 행복의 원료입니다

축 예장웨신 수도노회 제47차 정기노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 부노회장 김연준 목사 / 서기 오한옥 목사 / 부서기 전종규 목사
회의록서기 박노경 목사 / 부회의록서기 이정휴 목사 / 회계 정기훈 목사 / 부회계 조창원 목사

제 47회 노회장과 임원

신임 노회장 김춘택 목사(대원교회)
부 노 회 장 김연준 목사(진리등대)
서 기 오한옥 목사(샘물교회)
부 서 기 전종규 목사(평강교회)
회의록서기 박노경 목사(주는교회)
부회의록서기 이정휴 목사(한누리교회)
회 계 정기훈 목사(은혜교회)
부 회 계 조창원 목사(영광교회)

성 노 회를 축하드립니다.
수도노회장 김춘택 목사 외 임원 일동

수도노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은천교회 내,
전화 : 노회장 김춘택 목사 032)342-0259, 341-6182 011)4166-2307
서 기 오한옥 목사 02)2695-7590, 010)7191-5362

축 웨신 한성노회 제18회 정기노회

노회장 전명철 목사 / 부노회장 김상문 목사 / 부노회장 조철준 목사
서기 이춘상 목사 / 회의록서기 하청호 목사 / 회계 정기자 목사

제 18회 노회장과 임원

신임 노회장 전명철 목사(새생명교회)
부 노 회 장 김상문 목사(영생교회)
부 노 회 장 조철준 목사(큰빛교회)
서 기 이춘상 목사(한길교회)
회의록서기 하청호 목사(예향교회)
회 계 정기자 목사(벧엘제일교회)

성 노 회를 축하드립니다.
노회장 전명철 목사 외 임원 일동

한성노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7-2 새생명교회 내,
전화 : 노회장 전명철 목사 032)346-5488 H·P 010-3945-3927
서 기 이춘상 목사 02)839-4577 H·P 010-3956-4577

한국교회 성도수 제자리…목회자 리더십 회복돼야

교단별, 전년도 비해 1.47% 늘었지만 목회자 4% 증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성장세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파악되고 있다. 교회수 증가율은 평균 1%대로 미미한데다 교인 수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새신자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반면 목회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목회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목회자 수급조절책 마련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일 예장통합과 합동, 고신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등 5개 교단이 발간한 2008 '총회 보고서 – 교세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교단의 교회 수 증가율은 1.47%로 집계됐다.

예장합동교단 산하 교회가 총 1만1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통합(7671곳), 기감(5913곳), 예장고신(1689곳) 순으로 집계됐다. 2006년과 비교할 경우 예장통합 소속교회가 195곳 더 들어서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2.54%)을 보인 반면 예장고신 교단은 10곳(0.59%)이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 교인 수의 증감도 교단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5개 교단 전체 교인 수와 비교할 때 2006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합동이 291만2476명으로 가장 많은 성도 수를 보유하고 있고 예장통합(268만6812명), 기감(15.5만750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 많은 교회를 두고 있는 예장고신의 경우 직전 연도보다 2만6000여명 감소한 47만4407명으로 집계되면서 성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교회 및 교인 수에 비해 목회자 증가율은 교단에 따라 2~3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는 총 1만3887명으로 지난해 1033명이 늘어나 7.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다 교인 및 교회를 두고 있는 예장합동의 경우 2.08%(380명)로 대조를 보였다. 기장은 2.47%(65명) 증가하는데 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된다. 목회자 리더십이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알자,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세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게 중론이다. 출생률 저하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 전도 및 새신자 관리 실패 등 교인 감소 요인은 다양하게 꼽히고 있지만 목회자의 리더십이 정도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정재영 교수는 "교회를 찾는 대다수 사람이 종교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목회자가 교회 안팎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은 "목회자의 리더십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라며 "그 리더십은 교회 규모나 성도 수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구하는데 목숨을 거는 데서부터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무관심속 자살률 10년째 OECD 1위

일본 헝가리 보다 높아 …사망자중 절반은 자살

▲생전의 최진실씨 웃는 모습

故 최진실의 사망 이후 연이은 자살 사건들로 한국 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자살 통계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가족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국의 자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음을 적시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전체 사망자중 절반이상이 자살' '8년 동안 자살률 2배 이상 증가' 등의 통계자료들을 제시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8일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십년이상 유지한 비상 상황"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는 10년 전인 1998년(28.9)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자살통계에 따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상황인식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 자살통계와 통계청 자살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6,460명 보다 무려 5,334명이나 많은 11,794명이 자살했고, 2001년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6,933명 보다 무려 5,344명이나 많은 12,277명이 자살했다"며 통계청의 통계가 절반가량이나 축소된 통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신고 및 지연신고 되는 경우는 당해년도 자살통계에 넣지 않고 있어 자살하고서도 통계청의 자살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못된 자살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OECD 발표(OECD Health Data 2008년 6월)를 인용,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자살사망률은 13.2로 OECD 평균보다 2.5배, 가장 낮은 그리스보다 13.2배 높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자살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자살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 헝가리 보다 정작 우리의 자살이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이와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살시도자는 실제 자살자의 8-25배(자살예방협회)에 이르기 때문에 자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진성호의원은 7일 경찰청 국정감사자료를 인용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망한 129,562명 중 자살자는 66,68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1.4%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고, 자살자 66,684명 중 64%인 42,740명이 남성"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전체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국가차원의 문제로 심각히 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자살로 야기되는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도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가 2000년 6437명에서 지난해 1만217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난 8년 동안 매년 평균 13%씩,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률을 지적한 바 있다.

▲10월 4일 발인식장에서 모두가 울고 있는데 동생 최진영이 들고 있는 영정에는 고 최진실씨 혼자 미소짓고 있다.

이 의원 또한 "현재와 같은 초보적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자살자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삼아 자살시도자의 평가 및 관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연령대	1위			2위			3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교통사고	19.1	3.7	암	18.7	3.6	염색체이상등	6.9	1.3
10-19세	교통사고	23.9	5.4	자살	20.2	4.6	암	16.0	3.6
20-29세	자살	38.6	21.0	교통사고	19.0	10.4	암	9.2	5.0
30-39세	자살	25.8	22.4	암	21.5	18.7	교통사고	10.7	9.3
40-49세	암	29.5	64.0	자살	12.1	26.3	간질환	10.2	22.2

출처 : 통계청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2008.9) p10

	전체	남	여
그리스	2.9	4.8	1.0
멕시코	4.4	7.8	1.4
이탈리아	5.5	9.0	2.5
영국	6.0	9.4	2.9
스페인	6.3	10.0	2.9
네덜란드	8.1	11.5	4.9
포르투갈	8.7	14.6	3.8
아일랜드	8.9	13.7	4.0
독일	9.2	14.7	4.3
룩셈부르크	9.5	16.6	3.5
미국	10.1	16.6	4.0
캐나다	10.2	15.7	4.9
호주	10.2	16.2	4.4
아이슬란드	10.4	15.4	5.3
슬로바키아	10.9	20.0	2.9
노르웨이	10.9	14.9	7.0
스웨덴	11.1	16.2	6.1
OECD	11.2	17.8	5.2
뉴질랜드	11.9	18.9	5.3
오스트리아	12.6	21.0	5.1
체코	12.7	21.9	4.4
폴란드	13.2	23.7	3.7
스위스	14.1	20.9	8.1
프랑스	14.6	22.8	7.5
핀란드	18.0	28.1	8.3
일본	19.1	28.1	10.4
헝가리	21.0	36.3	8.4
대한민국	21.5	32.0	13.2

< 자살에 의한 사망률, 2006 >

자 : OECD Health Data(2008.6) *인구 10만명당 연령별 표준화 사망

신천지 축사한 강기갑 의원 죄송하다 입장 밝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홈페이지 통해 공식 입장 밝히며."나눔, 상생으로만 이해하고 참석했다" 해명했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신천지 전국대회에서 축사를 맡아 구설수에 올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경위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소위 '하늘문화예술체전'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낳고 걱정을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한국교계에 사과했다.

또 "10월 3일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장에서 체전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교회 신자를 포함한 자원봉사들이 4년에 한번씩 모여 화합과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소개받았다."며 참석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서 "행사취지를 나눔, 상생으로만 이해하고 참석했지만 논란을 낳게 될 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이다. 많은 분들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친 점에 유감을 전한다."며 뜻을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 의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항의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이를 반박하는 글들이 함께 올라와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다음은 전문>

'하늘문화예술체전' 참석 경위와 입장

지난 10월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소위 '하늘문화예술체전'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낳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장에서 '하늘문화예술체전' 조직위원회 관계자로부터 5일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늘문화예술체전'은 교회 신자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4년에 한번씩 모여 체육대회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소개받았습니다.

사회양극화와 개인주의 심화로 우리사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문화예술체전'의 행사취지를 '하나, 나눔, 상생'으로만 이해하고 참석했지만 이렇게 논란을 낳게 될 것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걱정을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허누아비

가을걷이 무렵의 농촌 전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허수아비이다. 황금 들녘을 지키는 허수아비는 그야말로 수확의 풍요로움과 옛 추억의 상징물이다.

허수아비는 가정의 액막이.저승굿, 마을의 용왕제. 별신제 등에서는 신이나 사람의 역할을 했다. 한 때 KBS TV의 인기 드라마 "왕과 비" 등 사극에서도 허수아비를 만들어 남을 해코지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는 제웅이라고 불리는 20~30의 작은 허수아비다.

허수아비의 기원에 대한 문헌 기록은 없지만 애절한 사연이 깃든 전설도 있다.

계모의 학대로 집에서 쫓겨난 허수라는 총각은 머슴살이를 하게 된다. 허수를 찾아 나선 아버지는 허수가 새를 쫓던 논둑에서 죽고 만다. 이를 본 새들이 놀라 달아나자 사람들은 허수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 새를 쫓았다는 이야기다.

민속학계는 장대를 들고 새를 쫓는 농부의 모습을 허수아비의 원형으로 치는 모양이다. 그뒤 시대 변천에 따라 활이나 총을 든 사냥꾼으로 옷 역시 한복에서 양복으로 변하더니, 요즘엔 티셔츠에 합바지 차림도 눈에 띌 정도이니 세태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전국 도로주변에서 흔히 허수아비를 볼 수 있다. 심지어 들판에 허수아비들을 세워놓고 시골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반기는 곳도 있다.

"국사교과서 內 기독교 왜곡 · 축소 적극대처"

에딘버러 선교대회 한국대회 준비위 조직키로

한국교회가 현행 중 · 고교 근현대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왜곡 기술에 대해 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편수지침 수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기총 ·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10월 10일(금) 제19-14차 임원회를 갖고 사고(분열)교단 처리와 역사교과서의 기독교 왜곡에 대한 대처 그리고 에딘버러 100주년선교대회 한국대회 준비위원회 조직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별히 이 날 회의에서는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역사왜곡 문제를 집중 성토하고, 기독교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역사기술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기총은 한국교회사 관련 학자 등 전문가와 함께 기독교를 제국주의 열강을 옹호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심하게 왜곡된 현행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내용의 수정과 보완에 힘을 쏟고, 기독교가 근 · 현대사에서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왜곡 또는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편수지침의 수정 추진 등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근 · 현대사 교재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교재 집필과 보급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는<에딘버러 2010 선교대회>를 위해 <2009 한국대회 준비위원회> 조직을 요청한 선교위원회(위원장 김선규 목사)의 청원을 허락했다. 에딘버러 2010 선교대회는 1910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백주년을 기념하여 20세기 세계선교운동을 회고하고 21세기 세계선교 패러다임 전략 수립을 위해 세계선교와 전도를 위한 로잔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세계루터교연맹, 세계침례교연맹, 세계감리교연맹 등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다.

또 최근 유명인의 자살과 이혼 급증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관 정립을 위해 생명존중과 가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주제가 학교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총회가 총회장 목회서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운영세칙 3조 1항과 6조 1항에 근거하여 회원교단 및 단체는 당해년도 회비를 11월 30일까지 미납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음을 각 교단 · 단체 및 실행위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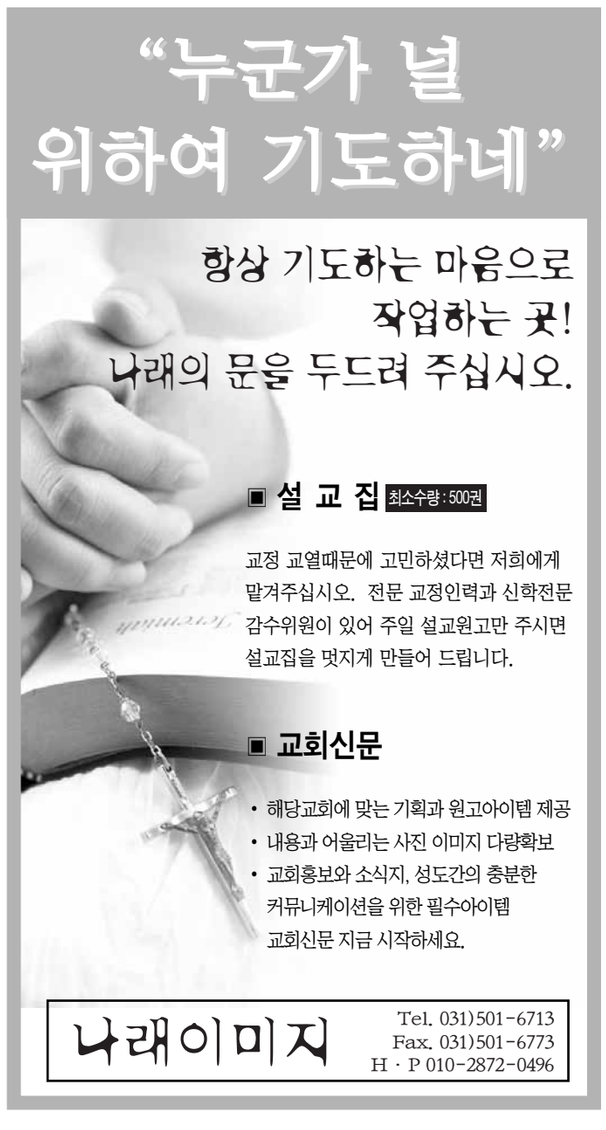
본지기자 및 지사모집

▣ 기 자 : 약간명
▣ 광고국 : 약간명
▣ 학 력 : 대졸(고졸)
▣ 자 격 : 세례 교인 우대
▣ 전국지사

본사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졸업증명서
- 사진(여권) 3매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무궁화 빌딩 12층
문의) 02)741-0031/011-468-6574



성경적상담과 기독교상담 (1)

김주원 박사

현재 한국성경적상담자협회의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각종 중독에 관한 현장사역을 돕고 있다.
미국국제성경적상담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의 한국멘토로 사역하며, ARM의 한국대표로 있고, 알코올중독전문사역교회 새움교회에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http://www.biblicalcounseling.co.kr)

일반인들이나 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의 말씀일 것이다. 하도 많이 들어서 혹은 교회의 교육속에 성경부분에 대한 장이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구절이기에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또 쉽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 있어서 이 성경구절 만큼 많이 읽혀지는 것만큼 믿지 못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다.

디모데 후서 3장 16-17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만약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외에 다른 인간들의 사상이나 생각들 혹은 경험들을 첨가한다면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편기자는 19:7-8절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분명히 완전하고 또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우둔한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시편기자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사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 낼 수도 있고 또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과 경건에 속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들을 의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면 왜 사람들은 거기에 인간의 지혜를 첨가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자꾸 자신들도 모르는 지혜나 철학을 첨가하려는 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자로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 할 수 없다.

기독교상담과 성경적상담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흔히들 같은 것이라고 구분없이 사용한다.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히 다르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밀가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밀가루인가를 구분하는 것만큼 다르다. 누룩을 넣은 밀가루나 넣지 않은 밀가루가 겉모양으로는 비슷해 보이거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도 빵을 만들거나 혹은 목적한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다면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기독교상담(흔히들 크리스찬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하고 나름대로 상담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담을 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나 혹은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헛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합리화하고 합당화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꿰어 맞추기 위하여 학문(특히 심리학)이라는 미묘한 이름을 빌려서 그 위에 덮어서 정체를 모르게 만들기도 하려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마치 현대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안 하면 뒤떨어지는 교회 혹은 유명한 알파나 혹은 G** 뭐라는 것을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인 듯한 느낌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기도 하고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러한 단어들은 현대 교회에 나타난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새로운 신종용어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의 현대교회처럼 어떤 훈련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변한다는 가정하에 [아버지학교나 어머니학교 또는 상담학교 등등]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변한 기록들이 있었는가? [제자훈련프로그램]에 다니거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학교]등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자로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라는 말씀속의 단어들이 그들의 가슴과 심장을 쥐어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진정한 제자로)들로 세웠다. 흔히들 개혁주의 기독교공동체의 프로그램들이 아닌 천주교나 혹은 힌두교 혹은 참선을 중시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져온 것들을 마치 기독교에 내려왔던 전통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 행위들을 "통합"혹은 "합력"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혹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속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훈련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까 싶다.

[다음호에 계속]

불 효 자

전영춘 목사(예화)

여러 해전에 있었던 실화이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가 아들 삼형제를 힘들게 공부시켜 출세를 하였는데 대학 나온 며느리들에다 세 아들 모두 고급 공무원이 되었다.

두 부모는 나이가 많아지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재산을 다 팔아 삼형제에게 나눠주고 아들네 집에 가서 살아보니 아들 삼형제가 하나같이 싫어하는 눈치를 하기에 두 부모는 하는 수없이 따뜻한 어느 봄 날 칠쭉꽃이 만발한 동산에 올라 칠쭉꽃 한 아름씩 꺾어 꽃잎을 실컷 따먹고 두 부모는 서로 부둥켜안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불효한 자식들이 부모를 죽인 것이다.

◈ 어느 시인이 이 소식을 듣고 신문에 이러한 시를 실었다.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따뜻한 산 진달래꽃이 아름답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아 그 꽃을 사뿐히 지며 가시옵소서.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또 어떤 사람은 이 기사를 읽고 탄식하며 글을 썼는데 농부의 세 아들이 졸업한 대학은 大(큰대)대학이 아니고 犬(개견) 큰대에 점하나 꽉 찍은 개 견자 개자식이다.

이것이 대학교라고 탄식하는 글을 썼다고 한다.

◈ 어느 마을에 청산 과부가 외아들을 고이 길러 모진 고생 끝에 대학 졸업시켜 놓으니 칠십

노모를 친척집에 맡겼다. 미국으로 유학 공부 더하여 박사학위를 받아오기 위해 1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미국으로 이민 간 아들 며느리 기다리다 친척집도 여러 날 더 신세질 수 없어 품팔이에 동냥밥에 근근이 살아가다 팔십 세가 넘어 노환으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천추에 한이 되어 뜬 눈으로 눈을 감지 못하고 추운 방에서 숨져 안타까운 일생을 마쳤다.

추수 감사의 노래 (시편 65:1-13)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1-8)와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9-13)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이 말씀은 시편 저자인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를 말해 줍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주의 전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전날의 서원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2-13절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 고자 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를 들으시는 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 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이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 니다. 모든 육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국적,신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의 주가 아니고 만민의 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주님께 나아와 간구한다고 해서 귀찮게 여기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끈질긴 과부와 같이 자주 주님께 나아와 강청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 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 시리라 (약1: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14:13,14)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큰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의지와 성실을 믿고 큰 소리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지만, 막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환난을 당하면 도움을 구할 대상을 찾습니다.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고목나무나 산신령에게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 놓고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빌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목나무의 속이 왜 비어있는 줄을 아십니까? 이는 사람들이 고목나무에게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비는데 고목나무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속이 다 썩어서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요일5:14) 다윗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3) 특별 은총 중에서도 사죄의 은혜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는 말씀은 죄의 세력에 압도당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는 즐길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원하는대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삼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요8:34) 죄는 천하장사나 영웅호걸도 무력하게 만들어 쓰러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는 댓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은 잠시 뿐 그 후에는 무서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쾌락은 순간이요 고통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결국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롬6:23a)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도 정욕의 죄 앞에서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는 전제군주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무서운 양심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32:3,4절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는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보다는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욕의 죄를 범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요일1:9)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시32:1)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짐에 짓눌려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염치불구하고 나아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 저를 정죄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 말씀집중 /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 회 특 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 사 특 징

♡ 확실한 동기부여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 저 스 타 임 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 (직통)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 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 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 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 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 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 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 당	철야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가정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 간	장 소	대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19~24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25세이상 미혼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a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09-10
TEL. 031-384-6826

전립선 비대증과 암에 대한 개요

이정우 박사 건강강좌

임상의학의 각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의들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쉬운 각종 성인병, 노인병을 어떻게 잘 예방하고 대처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나 의학세미나를 가져 의학상식과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류사회에서 살아가는 순리를 거역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전립선 세포중에도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탈하여 마음대로 증식하며 갑자기 돌연 변을 일으켜 암세포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정상적 전립선 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학문과 연구는 "왜"라는 말문에서 시작하여 계속 진행되고 연구 되어 갑니다. 전립선 질환은 생화학, 약리학, 그리고 분자 생물학의 발달, 각종 시험기구의 개발, 수술양식의 개량 발전에 따라 그 진단과 치료에 현저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질병의 확실한 원인분석과 해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과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할 것이다.

전립선은 남성 홀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의존도가 크다 할 것이다. 50세 이후가 되면 뇨도 주위에 있는 조직 즉 전립선 결절이 남성 홀몬의 영향을 받아 세포가 증식하여 전립선은 점진적으로 크게 자라가게 된다. 이러한 증세를 전립선 비대증이라 하며, 그 증상은 증식한 전립선 결절이 뇨도를 압박하여 일어나는 비뇨장해로 나타난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감마1」& 차단제가 개발되므로 수술 의존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수술도 (절제수술) 치료하는 환자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

전립선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으나 전립선암의 발생요인은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게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암에 대한 원인규명과 연구에 따라 또 남성 홀몬 약제의 개발, 신경 온열요법의 발달,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차 고령화 사회로 발전됨으로 고연령과 관계가 깊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은 날로 해마다 증가 되어 가는 것이 확실하다. 바꾸어 말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서론 :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은 남성들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의 일부이며 정액의 15~30%를 점유하고 있는 전립선액을 분피하고 있다. 방광의 바로 아래 부위에 있으며 그 전립선 중앙을 뇨도가 통과하고 있다. 50세를 지나면서 뇨도 부근의 전립선 세포 조직이 비대하여 뇨도를 압박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뇨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소변이 잘 배출 되지 않거나 발광에 잔뇨가 발생되어 취침 이후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증세가 일어난다. (하루 밤에 2~3회) 이러한 증세가「전립선 비대증」이라 하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대증의 특징에 하나이다.

전립선의 비대증은 암과는 달리 양성의 증식이므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질병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 전혀 배뇨를 할 수 없는 뇨패증 증세가 일어나 배뇨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50세 이상이 되면서 배뇨에 곤난, 야간 배뇨의 회수가 증가되면 일차로 비뇨기과의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화합과 일치로, 교단발전에 주역이 될 것을 다짐

회원 상호간 신뢰회복과 사랑 나눔 축제의 한마당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08 성총회 및 임시총회 성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08 성총회 및 임시총회 성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08 성총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6일과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에서 양일간 개최되었다. 전국 66개 지방회 교역자 및 장로 4천 2백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임시총회, 특강, 목회자세미나, 성령권능 충만 성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통합총회 이후 정비된 조직과 새롭게 구성된 회원들 간에 상호 교류하며 목회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체육대회를 통해 자웅을 겨루며 우의를 과시하는 등 오랜만에 신앙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번 행사 첫날 개회예배는 총본부장 임종달 목사(교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회장 조용목 목사(교단 대표총회장)의 개회선언, 명예대회장 김진환 목사(교단 정책위 대표회장)의 인사말씀, 상임운영위원 유재필 목사의 대표기도, 본부장 이건 장로(교단 회계)의 성경봉독, 장로성가대의 찬양, 교단 총회장 김석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이날 살전 5:16-1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3대 권면"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오순절 성령운동의 확산을 위해" 교단 상임운영위원인 박영찬 목사, 이재창 목사, 백승억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교단 상임운영위원 김경문 목사의 헌금기도, 에이레네 선교단의 특별찬양, 교단 총무 김봉준 목사의 광고, 교단 상임운영위원 박종선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모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 본교단 대표고문 조용기 원로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심신의 단련은 물론 아름답고 유익한 총회기간이 되므로 다시금 개인은 물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를 접목시키는 값진 계기가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격려한다"고 말했다.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전국각지에서 오신 총 회원 여러분을 환영하며 그동안 떨어져 있던 세 개의 교단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연합된 총회원들이 화합과 일치의 장을 여는 이번 성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놓고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고 감사 충만, 보람 충만한 일정이 되기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특강 시간은 상임운영위원 표순호 목사의 사회, 상임운영위원 김인찬 목사의 기도, 상임운영위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의 특별강의가 있었으며 상임운영위원 정원희 목사의 축도로 특강을 마치고 목회자세미나가 열렸다.

교단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하여 열린 목회자세미나는 상임운영위원 엄기호 목사의 사회, 상임운영위원 김성광 목사의 특별연주에 이어 조용목 목사의 세미나가 있었다.

곧바로 속개된 임시총회는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주재로 열려 2007년도 10월 15일 대통합선언대회 추인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통합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불참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와 재판위원회에 넘겨 그 수위 여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재단관련법 개정과 부분적인 수정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 이어 회원교회와 후원인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준비된 스타렉스 차량을 비롯 사십여 가지의 다양한 경품추첨으로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녁 8시 둘째날 행사장인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으로 이동했다.

둘째날 아침에는 교단 상임운영위원 최성규 목사(한기총 · 교회협 증경대표회장)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드렸으며 아침식사 후 국내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인도로 성령권능 충만 성회를 갖고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둘째날 체육대회 일정에 들어갔다.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계주로 각 지방회 별로 대진표를 작성 열띤 경쟁을 통해 각 종목별 우승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성총회 및 임시총회, 체육대회 등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드려진 폐회예배는 상임운영위원 이용주 목사의 사회로 이태근 목사의 기도, 이천영 목사의 성경봉독, 국제총회장 양재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목사는 막 2:1-12 말씀을 본문으로 "가능의 길을 찾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통합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새 비젼을 열어가는 데 모두가 주역이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이틀간의 성총회 및 임시총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총회원들은 결집된 힘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주역으로의 역할 감당을 다짐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랑의 하모니

PUP, 계층 · 이념 일치위한 도약

대통령을 위한 기도시민연대(PUP, 김용국 목사)와 하나복음선교회(윤드보라 목사)가 10월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08 민족기도와 사랑의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와 음악회는 계층 · 지역 · 종교 · 이념 · 민족간의 일치를 주제로 500여 명 이상 객석을 매운 가운데 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으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김용국 목사는 기도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부흥 △한국의 경제적 안정과 종교와 이념간의 갈등해소 △국가의 위정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기도 순서를 인도했다.

이어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탤런트 김동철 씨(한국TV탤런트협회 회장)와 하나은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 윤드보라 차유미 양옥희 유한나 강신숙 등 30여명의 복음성가 가수들의 음악회와 헵시바워십댄스선교회, 복지선교단의 워십댄스가 진행되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PUP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사명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 시작되어 특별기도회와 매주간 이메일을 통해서 국내외 정계 · 종교계 등의 지도자와 시민들에게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발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매월 1회 기독교회관에서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5일에는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02-737-6710, 010-4194-6710)

최원수 장로...「전도의 태풍이 불고 있다」

나만 홀로 천국갈 수 없다. 한국도농선교회(본부장 최원수 장로) 10.2일 '전도 엑스포 개최' 한국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전도 엑스포'를 개최했다. 최원수 장로는 '엑스포 전도의 태풍이 불어온다'는 주제로 500여 며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참석, 대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행사에 참석한 강사진과 언론은 하나같이 "한국교회에 전도의 태풍을 몰고 오는 쾌거요, 영혼을 강타함으로 민족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김준곤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 박재열목사(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장, 동선교회), 최원수장로, 김종수목사(21C총동원전도학교장), 박상철목사(온제자교회) 등이 강사로 나섰다.

천국약도 소금전도 왕으로 알려져 있는 최원수 장로는 "이번 전도 엑스포가 전도의 태풍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어 땅 끝까지 전도를 통해 우리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행사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전도현장의 노하우'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최원수 장로는 이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다, "쉬운 전도, 되는 전도, 열매 맺는 전도를 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되고, 천국의 빈자리도 채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금을 활용한 전도 노하우를 소개했다. 또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도 대상자의 아픔을 같이 해주고, 슬픔을 함께하며, 기쁨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최장로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선물을 건네는 것이며, 선물 자체에다가 핵심적인 복음을 담아 전도지로 활용하면 전도의 부담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와! 고기가 많다. 신난다며 복창을 하면서 '안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을 주제로 강의한 박재열 목사는 "진정한 교회 부흥은 불신영혼을 건지는 것이므로 대형교회는 작은 교회를 전도로 돕고, 이웃의 불신영혼을 살리는 것을 교회목표로 삼을 때 민족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수 목사는 "총동원전도는 무엇보다 후속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상철 목사도 "전도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불신자를 찾아갈 때 영적으로 기선 제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피종진 목사)

가을 성회 일정

피 종 진 목사

10월	2일(목)	철야 공주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목사) 전화 041)852-2211
	3일(금)	오전 수원영광교회(조금자목사) 011)9254-6852
	3일(금)~5일(주)	일본(JAPAN)오사카 새에덴교회(김수복목사) 090)7105-1000
	6일(월)~8일(수)	부평 온제자교회(박상철목사) 032)506-0120
	7일(화) 오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고세진박사)CRC강의
	9일(목) 오후	서울 감람산기도원(원장 이용학목사) 02)379-5688
	9일(목) 저녁	시흥 주사랑교회(남은미목사) 010)423-8922
	12일(주일)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조해금목사) 02)373-0179
	13일(월)오후	서울 총회신학교(학장 정태현목사) 011)242-4728
	13일(월)저녁	동서울 예장신학교(학장 김윤호감독) 019)351-6771
	13일(월)~16일(목)	광명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목사) 02)2683-4202
	14일(화) 오후	한국기독학술원(원장 문화평목사) 011)9916-9496
	16일(목) 오후	서울 소망기도원(원장 연인애목사) 02)3663-7777
	16일(목)~17일(금)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목사)한영신대목연원 041)852-2211
	17일(금)~18일(토)	창원 생수기도원(원장 배윤임) 055)294-8252
		제148차 해외성회(148th Overseas Assembly)
	20일(월)~23일(목)	중국(OHNA)북경연합성회(대회장 엄마태목사)
		주최 : 세계복음화선교협의회
	26일(주일)~29일(수)	중국(OHNA)신천주사랑한인교회(강하성목사) 86-131-4881-7171
	30일(목)~11월 1일(토)	부산JSTV위성방송국리바이벌 연합성회(이종문목사)
		장소 : 부산JSTV리바이벌센타 010)9269-7700

010-5255-7777

135-99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남서울중앙교회
NamSeoul ChungAng Presbyterian Church 186 Gaepo-Dong KangNam-Gu Seoul.
T:02-3411-9191 F:02-3411-9111 E-mail:webmaster@nsca.or

축

남서울중앙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

주 관 : 예배위원회
일 시 : 10월 19일(주일) 오후 7시
장 소 : 남서울중앙교회 본당
문 의 : TeL 02-3411-9191 / Fax. 02-3411-9111
E-mail : webmaster@nsca.or.kr

135-99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남서울중앙교회
NamSeoul ChungAng Presbyterian Church 186 Gaepo-Dong KangNam-Gu Seoul
Copyright(C) nsca.or.kr All rights reserved

예장웨신 수도노회 제47차 정기노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수도노회가 지난 9월 3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77-9호 대원교회(김계동 목사시무)에서 성 노회를 가졌다.

오전 10시 서기 전종규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회의록서기 바노경 목사가 기도를 부노회장 김춘택 목사가 "심신이 지쳐있을 때"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수도노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노회, 총회를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를 위하여 통성으로 합심기도가 있었으며 노회장 김병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조창원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3부 의장 김병수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절차 순서에 따라 임원선거에서 신임 노회장 김춘택 목사(대원교회), 부노회장 김연준 목사(진리등대), 서기 오한옥 목사(샘물교회), 부서기 전종규 목사(평강교회), 회의록서기 박노경 목사(주는교회), 부회의록서기 이정휴 목사(한누리교회), 회계 정기훈 목사(은혜교회) 부회계 조창원 목사(영광교회),

웨신 한성노회 제18회 정기노회

정학자 이명익 등이 목사임직을 받아

대한예수장로회총회(웨신) 한성노회가 지난 10.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새생명교회(전명철 목사 시무)에서 "화합되고 성장되는 노회"라는 표어 아래 제18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노회서기 이춘상 목사(한길교회)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부노회장 김상문 목사(영성교회)가 기도를, 조철준 목사(큰빛교회)가 성경봉독을, 노회장 전현구 목사(온누리교회)가 "주께 쓰임받는 제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임직식에 들어가 정학자, 이명익씨가 목사로 임직을 받았으며, 부노회장 전명철 목사 축도로 예배와 임직예식이 마쳤다.

이날 목사로 임직을 받은 두 사람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목사로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저희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해 주신 한성노회 선배 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인사를 했다.

이날 제18회 정기노회가 시작되고 절차에 따라 임원선거에 들어가 신임원은 아래와 같다.

신임 노회장 전명철 목사 부노회장: 김상문 목사 부노회장: 조철준 목사

서기: 이춘상 목사 회의록서기: 하청호 목사 회계: 정기자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제73차 정기총회

총회장 이강평 목사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제73차 정기총회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수사랑교회(이강평 목사)에서 개회돼 회장에 이강평 목사가 재 선출 되었다, 또 상임총무에는 김탁기 목사가 재 당선 되어 보다 안정적인 교단 발전과 부흥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성서적 부흥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제로 전국에서 180여 명의 총대가 참석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 총회가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그리스도의교회 전국대회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호주 멜번에 함재천 선교사, 아프리카 세네갈에 김호식 선교사, 브라질 상파울루에 박광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집중적인 선교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써의 발돋움을 다졌다.

한편 2009년 8월 17일-19일까지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리는 그리스도의교회 전국대회는 강사에 밥 러셀(Bob Russel)(미국 루이빌의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교회) SCC(South East Christian Church) 맡는다.

신임원

회장 : 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부회장 : 장성영 목사(경인교회)
최병춘 목사(행복한교회)
김재용 장로(목포교회)
상임총무 : 김탁기 목사(수원교회)
협력총무 : 김운철 목사(성문교회),
엄만동 목사(성광교회),
주경림 목사(해남교회),
이수영 목사(신성교회)
서기 : 김용강 목사(청주중앙교회)
부서기 : 김병승 목사(남부중앙교회)
회의록서기 : 전장원 목사(숭의교회)
회계 : 신동식 목사(성동교회)
부회계 : 최중범 목사(운학교회)
감사 : 이영호 목사(은광교회)
임헌근 장로(신탄진교회)

사선을 넘어서...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3화] 3일 연속 즉석공연… 팁 쏟아져 받은 대로 교회 십일조

중국 출장 둘째날, 일어나자마자 '십일조'라는 말이 뇌리에서 맴돌았다. 현지 안내원을 찾아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했다. 택시를 불러 타고 교회로 안내되어 갔다. 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한참만에 나이 든 중국동포 아저씨가 문을 열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빨리 문 좀 열어주시라요. 십일조 바치러 왔습네다."

"북조선 사람 같은데, 거기 사람도 십일조를 함까?"

"그딴 건 물을 것 없구, 빨리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라요."

건물 안은 컴컴해 잘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헌금함을 가리키며 그곳에 넣고 그냥 가란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바치고 가겠다며 우겼다. 아저씨와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다가 오래 지체할 수 없어 헌금함에 준비해온 돈을 넣고는 전날 식당에서 한국 손님들이 일러준 대로 기도를 하고 돌아섰다.

밖으로 나와서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였다. "하나님, 저 아저씨가 수상하니 얼른 챙기세요." 별도로 기도까지 하고 힘들게 발길을 돌렸다. 낮 동안 중국 무역상들을 만나 면담을 잘 하고 저녁 무렵 숙소로 들어갔다.

"아이고, 선생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노래 몇 곡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텔 식당 여주인은 내가 나타나자 반색을 했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다. 전날 난생 처음 생화 다발에 거금을 받았던 터라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여성은 꽃이라네' '도시처녀 시집와요' '심장에 남는 사람' 등을 불렀다. 소문이 났는지 식당은 만원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팁으로 받은 돈을 세어보니 4800위안이었다. 첫날의 거의 배였다. 십일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배로 부풀려준다는 말이 적중했다. 십일조를 하기 위해 500위안을 따로 떼어놓았다. 다음날도 날이 새자마자 교회로 달려갔다. 한번 재미를 본 나는 더욱 욕심이 생겼다. "하나님, 배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출장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돈을 10배, 아니 100배로 부풀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시 적중했다. 그날 저녁에는 손님들이 예비 좌석에다가 문밖에까지 진을 쳤다. 너도 나도 뒤질세라 팁을 주었다. 무려 3만6000위안이라는 거금이었다. 당시 중국에서 방 3개에 화장실 2개 딸린 고급 아파트를 두 채나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3600위안을 들고 바로 교회로 갔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다음번엔 세 달 출장을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같은 중국 출장을 마치고 고향땅을 향했다. 그런데 중국 세관에서 검사를 받는 도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선생님, 빨리 피하시라요. 지금 북조선 쪽 세관에 보위부 체포조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귓속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내가 남조선 안기부와 접촉해서 국가기밀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빨리 그 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달려간 곳이 교회였다. 십자가 앞에서 목놓아 울었다. 사흘이 아니라 석 달 출장 오게 해달라던 나의 기도마저 들어주셔서 아예 석 달이 아닌 영원한 출장길이 되게 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 그대로 뼈가 떨리는 듯했다.

말세에 7대 축복

계1:3"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아멘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요 축복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딤전6:15)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민6:24)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도 하늘의 성스러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엡1:1-5절)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축복 선언부터 먼저 하시었다.(마5:1-12)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후로 일곱 말씀을 남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시었고 종말에 일곱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구약의 신명기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종말의 복은 모두 성령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무서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가지 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1.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

<계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칠복 가운데 첫째가 예언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

<계14:13>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3.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의 복

<계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자신을 지켜야 한다.

4. 어린 양의 혼례식에 청함 받은 자들의 복

<계19:9>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지상의 재난을 피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의 신부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실로 있는 자들이다.

5.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의 복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6.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

<계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고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7.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의 복)

<계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로다.

킹-제임스 계22:14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두루마기가 아니라 계명들이라고 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다.

편집인

영화-플레툰

전영춘 목사

플레툰 영화란 월남전을 소재로 한 베트콩과 싸우는 미국 병사들을 그린 영화이다.

하루는 월남 작전 중 베트콩에 의하여 한 미국 병사가 무참히 살해당했다. 동료 한 사람이 살해됨을 보자 이성을 잃고 총을 들고 베트콩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무차별 살해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병사들은 경멸하며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잘 한 일이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군부대는 분열로 화합이 안 되었다.

서로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어느 날 치열한 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날 이었다.

증오심에 불타던 한 병사가 상관을 뒤에서 쏴죽이고 말았다. 먼 거리에서 이 사실을 지켜본 병사가 부상을 입고 헬기에 후송되어 가면서 남긴 말이다.

"우리부대는 증오심으로 단결이 안 되는 고통이 더 급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군인이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스스로 멸망합니다.

화합이 안 되는 수 만 명 보다 화합이 잘되는 백 명으로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기드온 300명 병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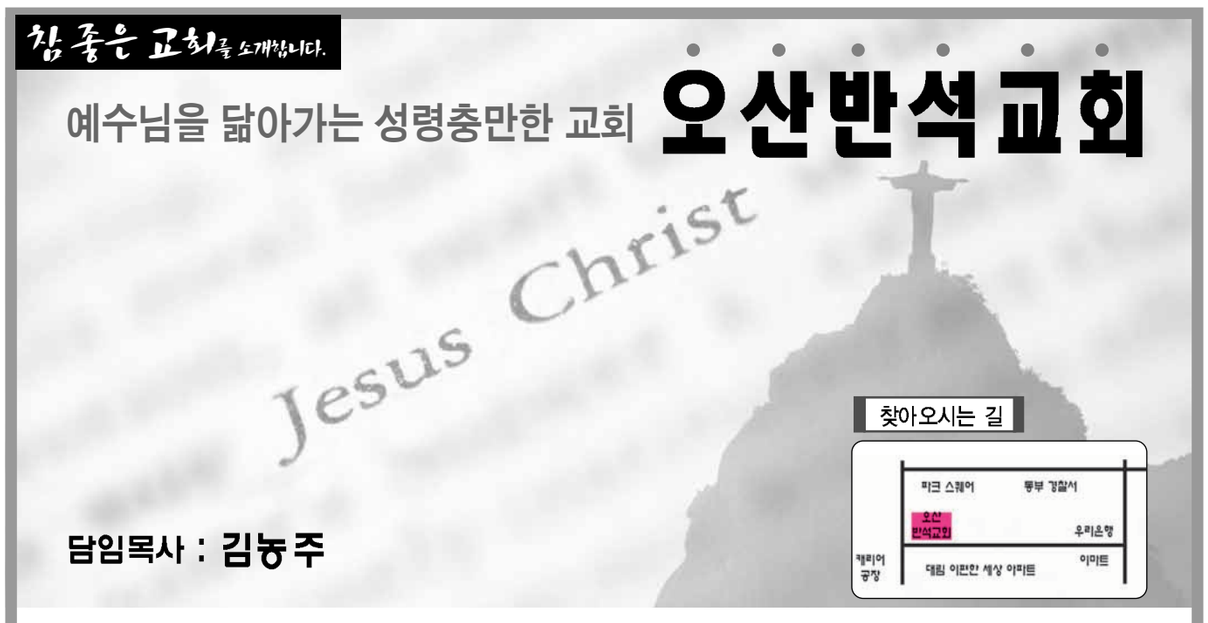
◈ 물질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물질로 망한다.

마이더스 왕은 황금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왕은 신에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신은 너무 간절히 빌기에 마이더스 왕의 소원을 들어 주었다.

왕은 소원대로 이루어지자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다. 그러나 곧 그는 불행에 빠졌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기 귀여운 딸도 아내도 손자, 손녀도 모두 황금으로 변하자 마이더스 왕은 불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신에게 황금이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지나친 물욕에 빠지면 불행하게 된다.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충만한 교회 오산반석교회



담임목사 : 김농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알파과정	오후6(주일)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행/복/한/사/람/들 * 예/수/의/사/람/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인생상담 및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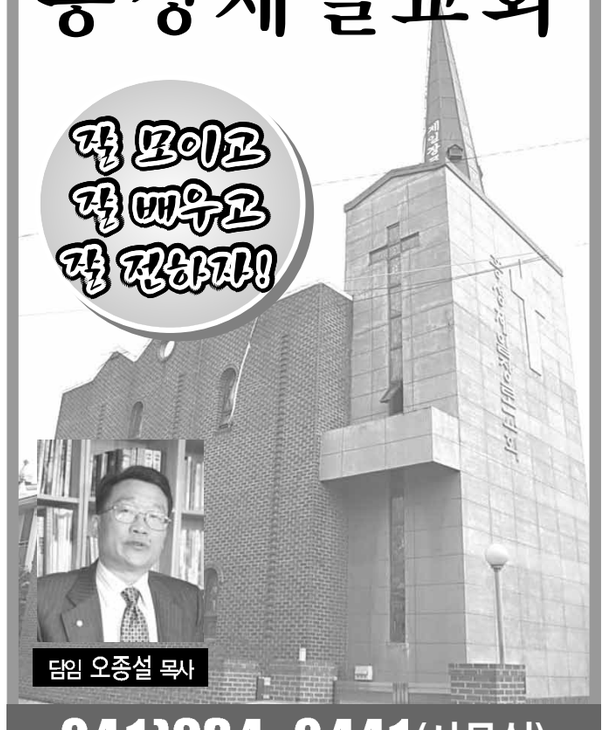
예배안내

기 관	시 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 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건·강·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041)634-0441(사무실)
041)633-9146(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힘차게 솟아올라라 웨신이여 성숙한 총회로 빛을 발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전국 각 노회 신임 노회장과 임원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함께 뜻을 같이 하여 총회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한계 딛고 조국 빛낸 장애 선수에게 축복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초청 감사예배서 선수들 격려

패럴림픽에 출전해 장애를 딛고 국위를 선양한 메달리스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스포츠위원회(위원장 정삼지 목사)는 10월 14일(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등 선수와 가족 및 체육지도자와 교계지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초청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정삼지 목사의 사회로 김요셉 목사(남북교회협력위원장)의 기도와 박홍자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 후 이종윤 목사(신학연구위원장)가 설교했으며 정진경 목사(명예회장)가 축도했다. 이종윤 목사는 "장애인 대부분이 후천성 장애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예비 장애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패럴림픽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재능과 열심과 목표와 의욕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갚는 길은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 설교했다.

예배에 앞서 엄신형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딛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것이 매우 귀하다"며 "한국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자랑한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격려했다.

2부 축하의 시간에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은 권경상 종무실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의 영광은 모든 대한민국의 동료 장애인들의 영광"이라며 "한국교회가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 후 "기독교가 장애인 종합체육의 발전에 귀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태수 목사(한희년 공동대표)는 "굴곡진 인생에 굴하지 않고 멋진 열매를 만들어 보인 선수들을 격려한다"며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정진하는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신보미 선수(보치아)와 박세호(육상) 선수가 장애를 딛고 실패자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간증했다. 또 최희범 목사(총무)가 참석한 선수와 체육지도자들을 소개한 후 엄신형 목사와 정삼지 목사가 선수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증정했다.

평안교회 입당감사예배에 초대합니다!

장승현 목사
-(現)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목사

초청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3년간 몸담았던 국민일보사를 떠나 지난 2004년 3월, 서울 관악구에서 개척 교회로 시작했던 평안교회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은 물론 총회와 노회
그리고 선, 후배 목회 동역자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던 중, 하나님께서 갑자기 종을 충남당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세워진 아담한 교회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집필과 지역복음화를 위한 순수목회를 시작하면서
평소 종을 아끼고 사랑하며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이전 및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자 가 용 :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I.C나와 우회전, 예산 삽교 방향 5Km쯤 오시면 좌측 첫 번째 주유소 지나 우측길(예산,합덕)고가밑으로 나오자마자 좌측, S오일주유소 (건양오페라하우스APT) 맞은편 우측 교회 입간판 있음.

대중교통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당진행 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를 타시고 신평에서 하차 하시면 됨. 남부 터미널에서 1시간30분소요. 차비는 5,200원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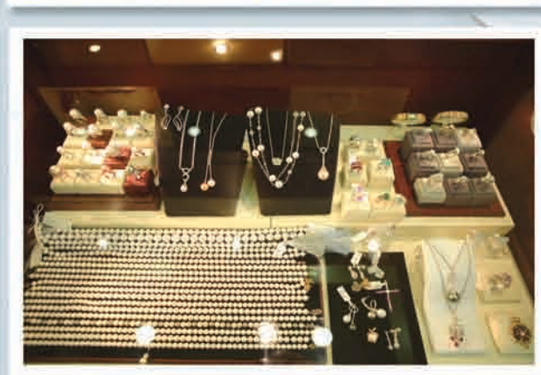
▷ 일 시 : 2008년 10월 25일(토) 오전 11:00
▷ 장 소 : 평안교회당
▷ 주 소 : (우)343-824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호
☎ 041)356-0644 H · P : 011-9027-9712

선교비후원계좌(예금주:장승현)
♡ 국민은행 466801-04-173006
♡ 우리은행 1002-336-374480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금, 다이아몬드 도매구입 및 상담문의
임평소 장로 : HP_011-432-2122

올 가을은 "에뚜알"에서 VIP고객으로 모십니다!!!



▶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를 한곳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금, 다이아몬드를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 교회 임직 및 칠순 · 회갑 한복을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예산을 대폭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탈웨딩 에뚜알
대 표 강정순 / 홍보담당 정기남

대표전화 :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e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관 12층 전관
(1호선 종로5가역 12번출구 도보 3분)

주보는 교회의 얼굴! 우리교회 주보, 우리가 만들어요!!!

컬러디지털(주보)복합기

신제품

세계 최초, 최대 1m20cm 출력!

COLOR 252/352
■ 분당 컬러, 흑백 25/35매 고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특별할인가
~~₩1,199,000~~
₩790,000

매직칼라 2490MF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 색감
2400×600dpi의 인쇄 / 복사 해상도 정말하고 선명한 인쇄 품질의 simitri토너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저렴한 유지비(4,500매 고용량 토너)
●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기능
흑백20매,칼라5매의 분당 인쇄속도 월 권장 출력량 35,000매의 튼튼한 구성
● 다이렉트 포토 프린트
PC없이 직접사진 출력

교회 모든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한금봉투 / 부흥회 포스터 / 각종 순서지 / 교회 요람 / 소책자 / 월간지 / 세미나 자료 / 교육 자료 / 찬양대 피스 / 주일학교 교재 / 주보 / 전도지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교회 사무실 / 교역자 실 / 주일 학교 / 초.중.고 등부 / 대학부 / 청년부 / 담임 목사실 / 기도원 / 유치원 / 성가대 실 / 새신자 실 / 홍보실

전자동 디지털 주보 인쇄기

DP-3217IP
-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접지기 · 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중철제본 · 접지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 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5779-0691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1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번호 없이 전국지사 및 대리점 운영중 전국어디서나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88-0691

▣ 8가지 기능을 한대로!
▣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www.jubo114.com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Ltd

종로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1-3(100주년기념관 앞)
Tel.02)762-8572 Fax.02)764-5893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7-9 영광빌딩
Tel.02)2065-2580 Fax.02)2066-1005